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A 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화법]

1. [출제의도] 발표 준비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학교 텃밭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① 1문단의 텃밭 가꾸기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도 직접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내용에서 제안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농작물을 직접 키움으로써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으며, '잠깐씩 머리를 식힐 수도 있고,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에서 학교 텃밭 가꾸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이와 같이' 텃밭 가꾸기는 '작은 관심과 시간 투자만으로도 나와 내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농작물을 직접 키울 수 있'다는 내용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학교에 그만큼 공간이 없나 하'는 의문점과, '평소 해보지 않은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나)에서 발표자가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텃밭 가꾸기라고 하니 혹시 농촌의 드넓은 들판을 떠올리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신문 기사를 보여준 후 청중의 반응을 보며 다시 읽어 주는 것과 같이 청중의 반응을 반영하여 정보 제시 방법을 바꾸고 있다.

③ 사진, 동영상,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선생님께서 직접 키우신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텃밭 가꾸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의 적절성 파악하기

민기는 발표자가 옆 학교 친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자신의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들어 친구의 말이 근거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① 동수는 발표자가 학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자투리 공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자료의 신뢰성 점검과는 관련이 없다.

② 찬호는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찬호에게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술을 선별하여 들었다.'는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보라는 텃밭 가꾸기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청중의 반응을 예측하며 들었다는

기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예지는 발표자가 텃밭 가꾸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간과한 채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발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파악하기

㉠에서 '학생 3'은 옛날 책은 구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축제 때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옛날 책을 소개해 보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는 이전까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라며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 [출제의도] 대화의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전문가는 '선장'이라는 방식의 설명, 문양을 새기는 방법에 대한 답변에서 과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은 '네, 좋아요.', '아, 그렇군요.' 등의 말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학생은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있다.

③ 전문가는 '선장'이라는 화제와 관련된 '그림 자료'와 '나무관 실물'을 보여주면서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⑤ 전문가는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와 같이 학생들이 계획한 활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작문]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학생의 글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친교적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친교적 글쓰기가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

① 학생의 글은 시각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체험 수기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학생이 글을 지역 인터넷 신문에 투고하려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글쓰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체험 수기를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으므로, 학생의 글쓰기는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있으므로, 학생의 글쓰기는 글을 통해 의도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점검 및 조정하기

(나)에는 '터치스크린 상의 글자나 숫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행위도 시각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내용과, '원하는 웹 사이트를 찾아 가더라도 찾은 정보가 음성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의 어려움을 겪는 내용에 웹 사이트에서 정보에 접근할 때의 어려움을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나)의 첫 부분에서 시각 장애인의 체험 수기를 다루고 있다.

②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장애인과의 시각 장애인 간의 인식 차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대비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제도적 측면의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접근하다'는 조사 '에(게)'와 어울리므로, ㉠의 '정보에'를 '정보를'로 고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다는 내용으므로, 문장 내 앞 절과 뒤 절을 고려할 때 '있지만'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직접 스크린 상의 글자나 숫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피동 표현을 '확인하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추가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지므로,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획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하기

'어르신'의 지나온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에서는 비유법과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을,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 보세요.'에서는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②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른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프로그램의 순서는 사전 강의, 노화 체험, 체험 나누기이다. 하지만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에서는 노인 생애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1문단),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 제시(2문단),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3문단),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4문단)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① 1문단의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 안타까웠'던 나에게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참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라는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는 내용과 3문단의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과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맨입[맨닙]’은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첨가 현상에 속하며, ‘설날[설:랄]’은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ㄴ’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속한다. 그리고, ‘좋은[조은]’은 ‘ㅎ’이 탈락하는 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에는 첨가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 ㉡에는 교체와 탈락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 ‘논일’은 ‘ㄴ’첨가가 발생하므로 ㉠에 적합하고, ‘닿는[달른]’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ㅎ’탈락과 더불어 교체 현상이 일어나므로 ㉡에 적절하다. ‘늦어름[느너름]’과 ‘나뭇잎[나문닙]’은 교체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와 함께 ‘ㄴ’첨가가 나타나고, ‘닿은[다운]’은 ‘ㅎ’탈락만 나타나며, ‘갈날[갈랄]’은 교체만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접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보’는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피보’는 어근(명사) ‘피’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잔피가 많은 사람’으로 의미는 더해지나 품사는 명사로 변함이 없으므로 품사가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안은 문장의 이해

‘영희는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는 관형절인 ‘동생이 빵을 산’을 안은 문장이고,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는 관형절인 ‘우리가 돌아온’을 안은 문장이다. 이때, ‘동생이 빵을 산’은 안은 문장의 ‘빵을’과 겹치므로 관형절의 목적어인 ‘빵을’이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돌아온’은 생략된 성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준다.’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인 ‘주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주다㉠㉡’은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인 ‘받다㉠㉡’이다. ㉢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의 ‘주다’는 ‘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의 의미인 ‘주다㉢’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용례이다. ㉣ ‘받다㉣’의 용례는 ‘날아오는 공을 받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로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 ‘받다㉤’의 용례는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을 ...’임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중의적 문장 수정하기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는 문장의 의미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온’ 시점이 ‘아침’이라는 것으로,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민수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침에 말했다.’고 수정해야 한다.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는 문장은 ‘입은 상태의 지속’의 의미도 포함하므로,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술해야 한다.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는 문장은 ‘지수도 야구 경기를 좋아하지만, 영철이가 더 좋아함.’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야구 경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

한다.’고 진술해야 한다.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 나오지 않았다.’는 문장은 ‘모두 나오지 않음.’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는 문장은 ‘장미 한 송이와 튤립 한 송이 받음’의 의미와 ‘장미 두 송이와 튤립 두 송이’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고 진술해야 한다.

[과학]

[16~18] <출전> 김옥용 외, 「인체생리학」

16. [출제의도] 표제와 부제 파악하기

이 글은 체내에서 지방이 소화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로는 ‘지방의 체내 소화 원리’가 적절하며, 부제로는 ‘트리글리세리드의 분해와 운반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정보 이해하기

2문단의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라는 부분과 3문단의 ‘쪼개진 지방 덩어리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하면 트리글리세리드는 모노글리세리드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의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라이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의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 침샘, 위, 이자에서 분비’라는 부분과 ‘쪼개서 분비되는 담즙염’이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의 ‘담즙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담즙염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함께 갖고 있어 지방 덩어리를 만나면 소수성 부위는 안쪽인 소수성 입자를 향해, 친수성 부위는 바깥쪽인 물을 향해 흡착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흡착되는 것은 담즙염임을 알 수 있다. ㉤ 2문단의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 침샘, 위, 이자에서 분비되나 입, 위보다는 소장 내강에서 본격적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지방의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를 도식화한 것이다. 4문단의 ‘먼저 이들은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된다.’를 통해 상피세포 안에서는 트리글리세리드가 쪼개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소수성과 친수성을 함께 가진 담즙염과 레시틴 등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을 중심으로 내부는 소수성을,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띠는 형태로 모인다.’는 부분과 2문단의 ‘담즙염은 지방 소화 효소는 아니므로 트리글리세리드를 분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그런데 이들은 소수성이어서 수용성 환경인 미즙 상태에서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수성과 친수성을 함께 가진 담즙염과 레시틴 등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을 중심으로 내부는 소수성을,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띠는 형태로 모인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쪼개진 지방 덩어리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하면 트리글리세리드는 모노글리세리드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된다.’와 ‘이로 인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미즙에서 상피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후, 미셀에서 떨어져 나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 4문단의 ‘먼저 이들은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 등의 물질로 포장되어 카일로마이크론(chylomicron)이라는 복합체를 형성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

[19~22] <출전> 신경철 외, 「디스플레이 개론」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의 ‘화소의 밝기 단계를 0에서 255 사이의 화소값으로 나타내는데, 0은 가장 어두운 밝기를, 255는 가장 밝은 밝기를 나타낸다.’를 통해 화소값이 커질수록 화면의 밝기가 밝아짐을 알 수 있다. ㉠ 4문단의 ‘빛의 투과율을 조절하여 화소들의 밝기 단계를 조절한다.’에서 알 수 있다. ㉢ 4문단의 ‘전압의 크기가 크면 응답 속도가 빠르고, 전압의 크기가 작으면 응답 속도는 느리다.’에서 알 수 있다. ㉣ 2문단의 ‘이 액정 분자들의 배열 방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배향막이다.’에서 알 수 있다. ㉤ 2, 3문단의 내용을 볼 때, 노멀 화이트 방식은 전압을 가해지지 않았을 때, 액정 분자는 90° 비틀린 상태로 배열되어, 수직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이 그 배열 방향에 따라 90° 회전하면서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5문단을 보면 ‘오버드라이빙은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걸어주어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V_2 를 가하면 응답 속도가 빨라져 잔상 제거 효과가 나타난다. t_2 는 전압을 V_1 으로 낮췄을 때 화소값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잔상 제거 효과는 t_2 이전에 나타난다. ㉠ 5문단의 ‘일반적으로 잔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의 세기만 걸어주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은 V_1 만을 가했을 때, t_0 부터 t_2 까지 잔상이 타난다. ㉢ 5문단의 ‘오버드라이빙은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걸어주어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인 V_1 에서 V_2 로 변화시키는 것은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 ㉣ 4문단의 ‘응답 속도란 액정 분자가 배열 상태를 바꾸는 속도를 말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과 전압인 V_2 를 가했을 때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액정 분자의 배열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과 같다. ㉤ 5문단의 ‘잔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진 높은 전압을 지속시키면 역잔상이 발생하므로 해당 전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춰 줘야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과 전압인 V_2 에서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인 V_1 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t_1 이후에는 역잔상이 발생한다.

21. [출제의도] 글을 근거로 이유 추론하기

2, 3문단의 내용을 볼 때, 윗글의 <그림 2>에서 빛이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액정 분자에 전압이 가해져 액정 분자가 대전체가 되어 전기장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되어, 빛의 진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배향막은 전압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의 배열 방향을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두 편광판의 배향막의 방향을 동일하게 한다면, 전압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의 배열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 분자는 90° 비틀린 상태로 배열되어 빛을 투과하는 상태가 된다. ㉣ 빛이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액정 분자의 배열 상태가 빛의 진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 분자의 배열은 90° 비틀린 상태이고, 이 배열 상태의 영향을 받아 빛은 수평 편광

판을 통과하게 된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① '구현(具現)'은 '어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의 의미이다. '몇 가지 부분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이룸.'의 의미를 갖는 어휘는 '구성(構成)'이다.

[사회]

[23~26] <출전>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3.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이해하기

3문단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기존의 형사 사법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분석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밝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비유적 진술을 이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두 이론을 절충하여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1문단에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 1974년 캐나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지속적인 범죄 증가 현상과 증가하는 재범률이 옹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기존의 형사 사법이 옹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기존의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를 국가에 대한 거역이고 위법 행위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사과와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옹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은 옹보형론이다.

① 3문단에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주로 범인, 침해당한 법, 처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옹보형론은 범죄를 상쇄할 해악의 부과를 형벌의 본질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재사회화론은 형벌과 교육으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옹보형론은 형벌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합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6.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가해자가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회복적 사법에 참가하면 진정한 태도 변화와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

①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볼 때,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유죄로 간주될 수 있다.

[예술]

[27~30] <출전> 임영방, 「바로크」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1문단을 보면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고대 그리스·로마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고대의 건축물'은 '배경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이행'을 사용하여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1문단에서 푸생은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지적인 사고가 걸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대칭'을 활용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림에서 '석상'과 '기둥'은 수직선을 이용한 구성임을 알 수 있고, 2문단에서 '선'을 활용하여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인물들은 각각 봄·여름·가을·겨울을 상징하고, 작가는 이를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강조한다고 했고, 1문단에서 푸생은 영원불변한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신화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인 '신'은 시간의 신이고, '야누스'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지녔으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에 본질을' 강조했다고 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푸생이 그림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들인 '배치'와 '재배치'는 2문단에서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와 연결되고,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대상의 '변화무쌍함'은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고 푸생은 이를 밀리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푸생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으므로 '밀랍 인형'이 작품 속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푸생의 '작품 속 자연의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의 '맞다'는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리다.'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①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모습, 분위기, 취향 따위가 다른 것에 잘 어울리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1~34] <출전> 이휘일, 「진가팔곡」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제1수>를 보면, '하는 일이 무엇인고'에 대한 물음에 '이 중에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노라.'라고 답하고 있어 자문자답의 방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풍년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제2수>의 '앞집의 쟁기 잡고 뒷집의 따비 내네'와 <제5수>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에 나타난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제3수>의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에 나타난 설의법을 활용하여 농사일의 어려움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4수>의 '이 밖에 천사만중(千駟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에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삶의 깨달음이, <제8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에는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③ <제5수>의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줌 손 보아라', <제7수>의 '배꼽은 농부들을 진시(趁時)에 먹여라'와 같이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④ <제2수>의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와 같이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따라 이해하기

[C]에서의 <제6수>와 <제7수>에는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제8수>의 초장에는 '풀 끝에 이슬 맺힌다'는 내용을 통해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에서는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각 수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서사'로 일 년의 풍년을 바라고 있으며 [B]에는 사계절의 시간이, [C]에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A]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풍년이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봄에는 농사의 시작,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모습이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B]에는 '춘-하-추-동'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며 <제5수>의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을 통해 또 다시 내년 봄을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B]에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C]에는 '새벽-낮-저녁'으로 이어지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으며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자고 하는 새벽, 점심을 준비하는 낮,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의 모습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다.

33.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함께 감상하기

㉠는 화자가 농부들에게 먹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는 '꽃나물'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제6수>를 볼 때,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 있으나,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① <제1수>에는 농촌에 생활하면서도 우국성심(憂國誠心)의 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라를 생각하며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종장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제3수>의 종장에는 전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제4수>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소설]

[35~38] <출전> 작자 미상, 「박씨전」

35. [출제의도] 소설의 내용 이해하기

박 씨는 준비한 외모로 인해 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으며, '비복들도 박 씨를 또한 박대하더라.'라는 구절을 보아 박 씨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비복들의 조력으로 견뎌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박 씨의 외모가 매우 준비한데도 불구하고, 혼인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박 씨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상공은 인물을 보는 남다른 안목을 보인다. ② 시백이 병에 걸렸어도 '승상이 전념하여 조심하시고 일가 황황한 걸 시백이 말을 감히 못하고 박 씨 혼자 아는지라.'의 내용으로 보아 승상과 일가에서는 시백이 아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부인이 '남도 부끄럽고 집안도 낭패하기 때문에 '다른 가문에 구혼하여 어진 며느리를 얻으면 어떠하오리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상공 부인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혼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시백이 '해가 지면 오늘 밤에는 들어가 전일 박대하고 잘못된 말을 먼저 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A]에서 상공은 시백에게 '박 씨를 얼굴이 곱지 않다 하여 구박하니 범절이 이러하고 어찌 수신제가하리오.'라며 유교적 명분을 들어 질책하고 있고, [B]에서 박 씨는 '부모께 영화와 효성'으로 섬겨야 하고, '일후는 수신제가하는 절차를 전갈이 마음소서.'와 같이 유교적 명분에 충실할 것을 상대에게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7. [출제의도] 서사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피화당'에서는 박 씨가 그동안 외모로 인해 자신을 멀리하는 등의 시백의 잘못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백은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미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화당'에서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시백의 태도는 '외당'의 상공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객집'에서 형용홍칙한 박 씨의 외모를 본 이후 시백은 박 씨를 박대하였으며, '피화당'에서 박 씨를 마주하여 박 씨를 박대한 것에 대해 '후회막급'이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객집'에서는 박 씨의 형용홍칙한 외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피화당'에서는 박 씨가 그 동안의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시백과의 화포를 풀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박 씨의 인품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객집'에서 박 씨를 박대하지 않겠다는 승상의 결심은 '외당'에서 손님들에게 박 씨의

덕행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중당'에서 무릎계를 벗고 있는 박 씨의 모습을 본 부인들은 수군대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외당'의 상공은 박 씨의 덕행을 손님들에게 칭찬하며 박 씨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38.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이해하기

앞 뒤 상황을 통해 시백이 여러 날 동안 박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태우다 병이 났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의 노심초사(勞心焦思)가 적절하다.

① 군자삼락(君子三樂):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르는 말, ③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이 통한다는 뜻, ④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하고 싶을 때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나타냄.

[현대소설]

[39~42] <출전> 황석영, 「한씨연대기」

39.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한영덕이나 한영숙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한영덕이 재판관을 받게 된 정황 등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① 인물의 가치관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북한과 남한에서 있었던 일을 제시했으나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서술자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인물의 독백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서사 전개상 기능 파악하기

'거친 음성과 구둑발 소리'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수술을 하는 장면을 통해, 한영덕이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신 때문에 간호원과 조수를 위협에 처하지 않게 배려하는 한영덕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 여사는 한영덕이 정보대의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할까 걱정하며 그러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③ 한 여사가 한영덕의 일로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민상호가 한 여사의 말에 대해 빈정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구조도는 공간A인 북한에서 공간B인 남한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인 한영덕이 각 사회에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갈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궁 척출' 수술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이었을지도 몰랐다.'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의사로서 느끼는 양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북한에서 특병동 환자인 경무원을 먼저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남한의 정보대에서 한영덕이 죄가 없는데도 투서를 받아들이고 그를 협박하는 것에서는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드러난다. ② 북한에서 한영덕이 '아이'를 먼저 치료하는 것은 특병동 환자보다 아이가 더 위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궁 척출' 수술을 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의사로서 생명을 중시하는

한영덕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③ 한영덕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살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것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 충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척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장르 비교하기

[A]와 달리 <보기>에서는 '간호원'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를 통해 원장의 심리를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② '조명, 어두워진다. 포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에서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파편'과 그에 대한 대사를 삽입하여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수술대로 와서 지시봉으로 환자 얼굴을 가린 천을 들춰 보고'를 통해 원장의 부정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시]

[43~45] <출전> 광재구, 「절망을 위하여」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않았고', '않는다'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웃에게 관심을 둘 수도 없고 삭막한 현실이 일상화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① 이 시에 계절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시에서는 음성 상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는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처음과 끝이 대응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ㄱ. '마음의 배고픔' 때문에 화자는 이 땅을 절망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ㄴ. 배고픔은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시에서 마음의 배고픔은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 추억과 같은 긍정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로 화자의 현재 심리를 비유한다. ㄷ. 이 때문에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노래하게 된 것이다. ㄸ. '이방의 발작 소리'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며, 화자는 그 주제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45. [출제의도] 내재적인 관점으로 작품 감상하기

'배'는 희망을 상징하여 이를 띄우는 것은 희망을 바라는 행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므로, 억압적인 현실을 외면하려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머리 위를 짓밟고 갔다는 것에서 화자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화자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암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눈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을 주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당시의 삭막한 현실에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자유가 억압된 당시에 민중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풀포기'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는 민중을 상징하며 '별빛'은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로 희

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